

바다 국어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나리자>는 아름답다.”와 같은 미적 가치 판단에서 우리가 단언하고 있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미적 가치는 작품의 크기처럼 그 작품의 속성인가? 만일 가치가 작품에 귀속되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왜 그렇게도 자주 어떤 것이 ‘나에게’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설명의 두 축은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인데, 상대주의는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이 두 극단적인 입장의 이론적 문제들을 피하고자 한다.

상대주의는 객관주의가 시작하는 곳, 즉 미적 판단 가치 판단은 말하는 사람이 아닌 대상에 관한 언급이라는 확신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상대주의자는 가치가 인간의 경험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주관주의를 따른다. 그러면 서도 주관주의의 무정부 상태에서는 벗어나기를 원한다. 즉, 작품에 대한 가치를 판단할 때, 어떤 경험들은 다른 것들보다 더 중요하며, 좋은 취향과 나쁜 취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상대주의자인 루이스는 우선 대상의 객관적 속성으로서의 가치와 미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이 가지는 느낌으로서의 가치를 구분한다. 좋은 경험은, 우리가 그것을 ‘유쾌한’이라고 하든 ‘만족스러운’이라고 하든, 본유적 가치의 경험이다. 본유적 가치란 도구적 가치와 상반되는 것으로서, 다른 무엇을 위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좋은 것을 말한다. 루이스에 따르면, 사물은 엄밀한 의미로는 본유적 가치를 가질 수 없고, 오직 직접적인 경험만이 본유적으로 좋은 것일 수 있다고 한다. 즉, 사물들은 그들이 우리에게 기쁨이나 불만을 불러일으킬 때에만 좋거나 나쁜 것이다. 한편, 어떤 대상의 지각에서 본유적 가치가 아무 매개 없이 즉각적으로 느껴질 때, 루이스는 그 대상이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는 표현을 쓴다. 따라서 모든 미적 대상들은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루이스의 이론에는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가 있다.

인문 지문	이항대립의 틀	논리적 이미지화!!	용어 주의
과학 기술 경쟁	과정원리의 틀	그래프 그냥 그리기	용어 변화 주의
1. 어휘력 2. 어디를 집중? 어디서 바뀌는가? - 연결어를 살피자 3. 틀에 집중해서 정보 파악 4. 이미지화, 용어 & 배경지식 5. 문제 틀이			

1 첫 문단은 집중해서 읽어주기!
 미적 가치 판단이라는 것을 가지고 논의를 시작
 모나리자는 아름답다 같은 미적가치 판단에서 아름답다 같은 미적 가치는 대상에 귀속 or 나에게 있는 것
 대상 자체의 속성이라고 보는 것이 객관주의x
 나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주관주의, 상대주의는 이 둘을 적절하게 섞어서 새로운 A를 제시!

CF) 시작하기 전에 기본 어휘력!
 객관: 나 말고 제 3자의 입장, 나와는 상관 없이 존재하는 것
 주관: 나의 의견, 나의 견해!
 정반합, 병립법: X와 정반대의 Y의 대립에서 각자의 모순을 극복한 새로운 Z의 등장

2. 틀을 통한 예측
 핵심은 관점 특히 이항대립과 대칭성!
 다만 주의할 부분은 원래는 상위 개념이 특정한 기준점에 따라서 하위 개념이 X2로 쪼개지고 이 둘이 비교대조되는 이항대립되는 반대의 방향으로
 새로 다른 개념 X1 X2가 적절하게 돌아들어서 새로운 Z를 도출하는 것
 정리하면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이항대립을 바탕으로 이 둘을 적당하게 수용, 병행한 상대주의가 등장할 것이다
 - 주관주의(X) VS -객관주의(Y)
 → 상대주의(A)

3. 본경적인 독해- 이미지화와 배경지식을 충분히 활용하면 좋다
 A 즉 상대 주의에 있는 주관주의와 객관주의를 살피기
 X 미적 가치 판단은 대상에 대한 언급 즉 미적 가치 판단은 대상에게
 그러나(중요!)
 Y 경험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즉 경험해야 한다
 + 무정부 주의는 거부, 무정부 주의는 A에는 없는 Y만의 속성이며 이때는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것 더 올바른 것을 거부한다
 이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이 플라톤의 이데아론, 이데아처럼 어떤 객관적 가치가 존재하면 그 가치를 중심으로 100점 90점 80점의 점수 주기가 가능함, 그러나 나의 경험만 강조하면 그러한 점수 주기는 불가

뒤에서도 이러한 틀은 그대로 유지되며 X 객관적 속성으로의 가치 Y 느낌으로의 가치가 존재
 좋은 '경험' = 본유적 가치의 경험, 여기서부터 독해가 너무 어려워짐 그 이유는 용어가 바뀌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제시되기 시작하는 것에 있다, 우선은 경험을 이야기
 본유적 가치: VS 도구적 가치(?) 그 자체로 좋은 것
 사물- 그 자체로 좋을 수 없다(도구적 가치만 갖는다) 직접적인 경험'만' 그 자체로 좋은 것
 본유적 가치는 기본적으로 경험이 전제
 =사물의 경험에서 본유적 가치가 가능, 돈(도구)을 써서 아름다움(본유)
 한편(주의!)

본유적 가치가 매개 없이 느껴진다면 그 대상은 내재적 가치

미적 대상은 내재적 가치

복잡한 내용을 정리하면 미적 대상 → 내재적 가치

미적 대상을 경험할 때 본유적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

조금 더 보자면 내재적^경험 → 미적 대상 → 내재적 가치(주의!)

이제 미적 가치를 루이스 식으로 정의해 보자. 미적 가치는 절대적인 속성도 아니고 즉각적인 느낌도 아니다. 그것은 본유적 가치를 경험케 하는 대상의 잠재력 혹은 가능성이다. 이는 관계적 속성, 즉 인간과의 상호 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물에 귀속되는 속성들 중의 하나이다. 그로 인해 미적 대상은 누군가가 지각할 때 즐거움을 제공한다. 그렇다고 대상이 인간과 실제로 접촉될 때에만 그 속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니다. 잠재력은 그것이 경험되고 있지 않을 때에도 그 대상 안에 남는다. 이 점에서 상대주의는 객관주의에 가깝다.

그러나 작품이 가진 가치의 잠재력이 누군가에게 좋은 것으로 느껴져야만 드러난다면, 똑같은 작품이 A에게는 즐거움을, B에게는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을 상대주의자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미적 가치 평가란 미적 경험을 하는 사람 자신의 느낌에 대한 진술, 즉 “나는 이것이 좋다.”라는 틀릴 수 없는 판단과 동일하다는 것이 주관주의의 핵심이다. 반면, 상대주의자는 “이것은 아름답다.”라는 판단을, 그 형식 그대로, 가치를 대상에 귀속시키는 판단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미가 본유적 가치 경험을 자극하는 하나의 잠재력이라고 보는 상대주의자에게 이러한 판단은 객관주의자의 이해와는 달리 일종의 예측이다. 만약 다른 이들이 그 작품을 감상한다면 그들도 미적 즐거움을 느낄 것이라 예측하는 것이다. 각각의 예측은 경험적 증거에 의해 지지되는 정도가 다르므로 상대주의자는 이로부터 모든 이의 평가를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나아간다. 더욱이, 루이스는 내가 어떤 음악에 대한 나의 현재 느낌을 잘못 판단할 리는 없겠지만, 그 음악이 그 느낌을 계속 불러일으키리라는 경험적 예측은 나중에 얼마든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를 통해 자신의 느낌에 대한 보고가 “이것이 아름답다.”라는 판단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

미적 '가치'를 정리하기- x&y의

미적 가치는 잠재력, 이 표현이 x&y의 적절한 결합

대상에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인데 이것을 경험할 때 본유적 가치 즉 그 자체로 좋은 것을 느낄 수 있다

그 다음 문장도 쉽게 이해되지는 않는다

관계적 속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우선은 있는 그대로 잠재력은 관계적 속성이 있다고 했기에 잠재력 → 관계적 속성이고 관계적 속성은 상호작용과 동치로 읽었다
잠재력은 관계적 속성이고 이를 경험할 때 즐거움을 얻는 것

그렇다고(주의!)

꼭 접촉할 때 즉 경험할 때만 그 속성이 있는 것 x

경험되지 않을 때도 잠재력이 있다

쉽게 잠재력, 미적 가치, 본유적 가치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 힘은 대상 안에 있고 이것이 경험될 때 즐거움이 등장하는 것

이렇게 보면 객관주의에 가깝다

그러나(역접 주의!)

앞에 말을 전제로 잠재력이 경험되면서 본유적 가치와 즐거움 좋은 것으로 느껴진다는 구조에서 왜 사뭇마다 느끼는 정서가 다를까?

Y: 미적 가치 평가란 자신의 느낌에 대한 진술= 틀릴 수 없는 판단

반면(주의!)

A: 미적 가치 판단은 가치를 대상에 귀속, 즉 대상에 있는 것 여기서 X와 유사 '그러나' 미가 본유적 가치 경험을 자극하는 하나의 잠재력, 이것은 일종의 예측 여기서 예측이라는 말에서 범람 잠재력을 가진 대상을 감상하고 경험하면 그들도 미적 즐거움을 느낄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 예측은 경험적 증거에 의해 지지되는 정도가 다르기에 평가도 달라질 수 있는 것. 즉 이 잠재력에 경험이 더해진 예측은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 틀릴 수도 있는 것

더욱이

느낌은 시간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Y로는 이것이 아름답다는 것에 대한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런 내용은 2020 수능 특강 계열의 관념론에서도 그대로 찾을 수 있다

어떤 특성이 대상에 그대로 존재하고 인간은 이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로 서술한다는 객관주의

어떤 특성은 대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주관적 판단일 뿐이라는 주관주의

이 둘을 객관주의의 입장에서 섞은 대상의 속성이 있지만 이것이 관찰자의 경험에 의한 관념으로 드러난다는 해겔의 관념론 등이 그것이다

이와 유사한 복잡한 내용을 이원준 T의 자료에 나온 것처럼 이미지화하면

주관주의	상대주의	객관주의
경험 중시	대상의 잠재력 (대상에 귀속)	객관적 속성 (대상의 귀속)
틀리지 않는 느낌	틀릴 수 있는 예측	객관적 진술

1. 루이스 이론의 성격을 바르게 기술한 것은?

- ① 미적 가치를 잠재력으로 본 것은 주관주의적 성격이고, 그 잠재력을 대상의 속성으로 본 것은 객관주의적 성격이다
- ② 미적 판단이 자신의 느낌에 근거한다는 것은 주관주의적 성격이고, 그러한 느낌이 본유적 가치라는 것은 객관주의적 성격이다
- ③ 미적 가치를 경험으로서의 가치로 보는 것은 주관주의적 성격이고, 그것을 대상에 내재한 가치로 보는 것은 객관주의적 성격이다
- ④ 미적 가치를 미적 경험과 관계된 즉각적 느낌으로 보는 것은 주관주의적 성격이고, 그러한 판단이 틀릴 수 없다는 것은 객관주의적 성격이다.
- ⑤ 미적 판단을 자신의 느낌에 근거한 수정될 수 없는 판단으로 보는 것은 주관주의적 성격이고, 그것을 수정될 수 있는 예측으로 보는 것은 상대주의적 성격이고, 그것을 수정될 수 있는 경험적 예측으로 보는 것은 객관주의적 성격이다

2. 위글에 나타난 개념들 중, <보기>를 예로 들어 설명하기에 적절한 것은?

<보 기>

우리가 빵을 먹으면 빵은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한다, 물론 아무도 먹고 있지 않을 때에도 빵은 영양가가 있다. 하지만 빵은 그것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영양가가 있지 그 자체로 영양가가 있는 것은 아니다.

- ① 대상의 잠재력
- ② 경험적 예측
- ③ 객관적 속성
- ④ 본유적 가치
- ⑤ 경험적 증거

답: 3번

근거: 루이스 이론의 핵심은 X와 Y의 결합이며 구체적으로 대상에는 잠재력이 있고 이것을 경험함으로써 즐거움을 느끼는 것, 그런데 이러한 미적 가치 판단은 경험의 정도에 의해서 지지되는 정도가 다르기에 다를 수 있는 것,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범위까지 짚 연결하기!

특히 어려운 내용일수록

1번: 미적 가치를 잠재력에서 잠재력은 대상에 귀속되는 것으로 객관주의적 성격에 가깝다, 그 잠재력을 경험해서 본유적 가치를 느끼는 것, 이것을 틀릴 수 있는 예측으로 보는 것이 주관주의에 가깝다

2번: 기본적으로 미적 판단이 자신의 느낌에 근거한다고 하지 않았다. 마지막 문단에 반면 그 미적 판단을 대상에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잠재력을 경험하는 것은 즐거움 본유적 가치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4번: 미적 경험과 관련하 즉각적 느낌으로 보는 것은 주관주의적 성격이 맞지만 루이스는 이렇게 보지 않고 본유적 가치를 경험하게 하는 대상의 내재적 가치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이 틀릴 수 있다고 보았다, 미적 가치 판단이 틀릴 수 없다는 것은 주관주의의 입장이며 객관주의는 객관적 속성을 서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번: 미적 판단을 수정될 수 있는 경험적 예측으로 보는 것은 상대주의적 성격이다

답: 1번

근거: 핵심은 대상에 어떠한 가치가 있으나 이것이 실제로 효과를 보려면 경험되고 느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는 미적 가치 즉 대상의 잠재력과 관련된 내용이다

경험적 예측은 개인이 직접 대상의 잠재력을 경험하고 느끼는 결과로 이들은 위상이 다를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위의 보기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객관적 속성과는 다르게 신체에 미치는 영향 즉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기에 객관적 속성도 어렵다

3. 루이스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예측으로의 미적 판단이 그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속력을 행사할 근거는 없지 않는가?
- ② “나는 좋아하지 않지만 이 작품은 좋다”라고 의미 있게 진술하는 것이 가능해야 하는 것 아닌가?
- ③ 가치 판단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진다는 것 이상을 말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 ④ 평가 대상의 미묘함을 볼 수 없는 사람의 미적 판단은 경험적 예측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 ⑤ 대상이 불하다고 느낀 것이 조명 탓이었다면, 그 경험에 근거한 미적 판단은 철회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답: 1번

cf) 비판 다시보기!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의 식문화에 의해서 유래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전세계적 보건 체계가 더 잘 정립될 수 있다라는 논의가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의 식문화에 의해서 유래된 것이 아니다

식문화에 의해서 유래되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다

반성하고 책임질 가능성이 없다

반성하고 책임진다고 보건 체계가 더 잘 정립되는 것이 아니다(약화/상관x) 등으로 비판이 가능

논리적으로 정리하면 사코르나 바이러스가 중국의 식문화에 의해서 유래되었다고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의 구조가 대표적인 비판이다

즉 전제는 참이지만 결론은 참이 아닌 $A \wedge \sim B$ 를 떠올리면 된다

문제로 돌아오자

“각각의 예측은 경험적 증거에 의해 지지되는 정도가 다르므로 상대주의자는 이로부터 모든 이의 평가를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나아간다.” 같은 주장이나 앞뒤의 주장과 우선 연결한 뒤 이에 대한 비판으로 ‘경험적 증거에 의해 지지되는 정도가 다르더라도 평가를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등을 떠올릴 수 있다

이는 예측으로의 미적 판단이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것으로 연결된다